

市·道·정치권 ‘서남권 바이오헬스복합단지’ 공감대

지역 국회의원 공동주최 포럼

안도걸 “전남·광주 이미 잠재력 충분”
김영록 “정부 강력한 정책지원 필요”
강기정 “강소형 융합 복합단지 확신”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서남권 바이오헬스복합단지’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전략’ 포럼이 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안도걸·전진숙·신정훈·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광주시·전남도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신경 K-헬스미래추진단장을 비롯한 의료바이오산업 전문가, 바이오기업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포럼 주제에 대한 깊은 공감 의견을 전했다.

특히 포럼 참석자들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전남·광주의 바이오 분야 인프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근거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전략 국회 포럼’에 참석해 주요 내빈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경 K-헬스미래추진단장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첨단의료 산업에 반드시 정부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해 호남권(전남·광주)에 추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오산업과 관련) 전남과 광주는 이미 뛰어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2002년 전남바이오진흥원 설

립, 2010년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 조성 등 20여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기틀을 다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광주 첨단3지구 국가 AI데이터센터 연계 헬스케어 플랫폼은 AI와 연계된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은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산업 육

성’과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 국민주권정부에서 이를 구체적인 정부 과제로 실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화순은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이미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의 기틀을 갖추고 최근 디지털화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광주의 첨단 의료기기 인프라가 더해지면 단기간 내 저비용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남은 전남대·화순전남대·조선대병원의 축적된 임상기술,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와 장성 카카오테라이즈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도 준비돼 있다”며 “전남·광주는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지정과 같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미래 혁신을 이끌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고품완 행정부시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광주는 500여개 의료기업과 함께 AI에 기반한 의료기기산업 선도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상생·연대의 힘이 더해진다면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는 저비용·고효율의 강소형 융합 복합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는 전남과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연구개발, 임상, 제조 등 전주기적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전남도와 광주시가 중심이 돼 기업, 대학, 병원, 연구기관이 융합해 혁신을 창출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또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는 기존 오송이나 대구·경북과는 사업 분야의 중복을 피하면서 연구분야가 특화돼 있거나 집적 인프라를 갖고 있어 최소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김재정 기자

박찬대 당대표 후보, ‘전남형 공공의대 모델’ 제시

전남도의회 기자회견

국회 차원 예산·입법 지원 약속
“군공항 이전,李大통령 국가비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국회의원은 9일 “공공의료 인력을 전남 내에서 양성하고 의료 인력이 전남에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전남형 공공의대’ 모델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호남이 묻고 박찬대가 답하다 in 전남’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발전을 위한 첫 번째 의제로 국회 차원의 예산·입법 지원을 통한 ‘전남형 공공의대’ 모델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사진〉

이어 박 후보는 “여수 석유화학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 정유·석유화학 산업을 스마트화하고 고도화·친환경화해 여수산단을 살리겠다”며 “이



를 통해 전남의 경제 기반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그는 “해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목포 RE100 전용 국가그린산단, 진도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등 전남을 ‘에너지 거점도시’로 육

성하는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박 후보는 “서남권 관문공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TF를 가동한 국가비전”이라며 “군공항 이전이 전남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 전남의 새로운 하늘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내란 종식에 대한 확고한 입장으로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법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죄자가 알박기로 심어놓은 인사의 원상복구, 내란법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차단 등 자신이 발의한 ‘내란특별법’과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통해 12·3 내란을 완전히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당대표 당선 즉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킬 것”이라며 “지방선거 공천에 당원 참여를 보장하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 당원과 함께 감내 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지역 국산밀 생산·가공·유통 활성화 모색

광주농기센터·농촌진흥청 현장점검

천원국시·우리밀 홍보관 등도 탐방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9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광주지역 국산밀 생산·가공·유통 현황을 찾아 ‘국산밀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해 4월 광주시·농촌진흥청이 공동 주관한 ‘국산밀 안정생산·소비확대 심포지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방문단은 농업기술센터 노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시작으로 광산구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서구 천원국시 9호점, 우리밀 홍보관 등을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우리밀농업 주요 사업·수매 현황 ▲건조·저장시설 및 품질분석실 운영 실태 ▲국산밀 외식 활용 우수 사례 현황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자문 등이 이뤄졌다.

방문단은 천원국시 9호점과 우리밀홍보관 등

국산밀 외식 활용 우수 사례 현황을 둘러보고 로컬푸드 외식 모델을 통한 소비 확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산밀 외식 브랜드 ‘천원국시’는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이 2023년부터 운영하는 정책형 모델로 단돈 1천원에 우리밀 국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 총 10호점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운영 중인 노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국산밀 산업 간 연계 가능성도 점검 논의했다.

농업기술센터는 국산밀 6개 품종에 대한 생육 정보, 병해충 발생 현황, 품질 특성 등을 수집해 품종별 재배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국산밀 산업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는 자리였다”며 “스마트농업 기술 기반으로 지역 밀 산업의 재배 안정성과 품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무안종합병원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가는 무안종합병원
생명을 존중하는 무안종합병원은
언제나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재활의학과 운영

중추신경계의 질환이나 손상 및 말초신경 근육질환
즉 뇌졸중(중풍), 각종 뇌질환, 뇌성마비, 척수손상, 두부손상
다양한 말초신경질환 근육병, 상하지 절단으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와
합병증을 치료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장애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로 복귀시켜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진료과목

신경외과 1·2	진단검사의학과	내과 1·2·3·5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1·2	정신건강의학과 1·2	외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지역 주민들의 열린 병원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송의료재단·무안종합병원
주소: 무안군 무안읍 동탄로 65 / 홈페이지: <http://www.muangh.co.kr>

대표전화 061) **450-3000**
응급실 061) **450-3119**